

<이네와 단오>

소속: 인문과학대학 기독교학과

학번: 18

일러두기

이 소설은 글쓰이에 의해 창작된 가상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1

‘검은 진주가 박힌 노란색 구슬... 물을 똑똑 떨어뜨리는 고드름... 일렁이며 반짝이는 새까만 파도...’ 단오는 경이에 찬 눈동자를 재빠르게 움직이며 대략 다섯 걸음 앞에 닥친 저것의 정체를 해석하려 머리를 굴렸다. ‘뭘야... 후표범이잖아!’ 눈앞에 오롯이 선 저것의 아름다움은 단오의 세계에서 아주 낯선 것이었다. ‘어떻게 맹수가 이곳에?’ 생각이 든 찰나, 생명체는 분홍색 코를 한 번 크게 쿵쿵거리고는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발톱을 들어 올렸다. 단오는 뒤돌아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어차피 길을 잃은 터라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세차게 내리치는 신발에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헉헉거리는 숨소리와 불규칙하게 겹쳐졌다. 생명체가 자기 몸길이보다 넓은 보폭으로 성큼성큼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단오는 속도를 더 끌어올리며 엉망이 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뜨거운 땀이 흐르고 숨이 차오를수록 시야가 심하게 흔들렸다.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어지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까운 나무 뒤에 풀썩 주저앉아 눈을 질끈 감았다. ‘하나, 둘, 셋, 넷...’

그때, 멀리서 다그닥거리는 말발굽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단오는 겁에 질려 몸을 더 웅크린 채로 귀를 기울였다. 사람이 말에서 내리는 듯 가벼운 발소리가 나더니 아이인지 젊은 이인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나같은 사람이야. 괜찮아.” 단오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나무 뒤로 뺄뚱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요동치는 붉은색 긴 머리카락을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머리에 햇빛이 비쳐서 노란색과 분홍색과 빨간색이 뒤섞여 반짝거렸다. 그 사람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너덜거리는 망토같이 생긴 진한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몸집에 비해 너무 커서 옷자락이 땅에 끌렸다. 그의 바로 옆에 윤기 나는 털과는 어울리지 않게 형클어진 갈기를 가진 흰칠한 말이 반듯하게 서 있었다. 분명 사람이 탄 것 같았는데, 안장도 없고 머리에 끈도 묶여 있지 않았다. 그 사람은 단오가 숨은 나무의 맞은편에서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맹수에게 다가가 천천히 손을 뻗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동안 노란 눈을 치켜뜨고 그를 쳐다보던 검은 표범은 이내 그의 손에 이마를 붙이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가 청아한 웃음을 터뜨리며 표범을 쓰다듬었다. “그렇지... 이제 괜찮으니까 가던 길 가렴.” 표범이 우거진 숲속으로 사라지자, 그가 몸을 돌려 나무 뒤에 입을 벌린 채로 멍하니 보고 있는 단오와 눈을 맞추었다. 연한 나뭇가지와 비슷한 색의 피부에 맑게 빛나는 초록색 눈동자와 앓고 기다란 눈, 작은 코와 붉은 과일조각이 묻어 있는 입술이 조화를 이룬 얼굴이었다. ‘황인종이 우성이었나 보네. 백인과 흑인은 각각 사분의 일정도겠어.’ 처음 보는 아름다운 눈빛이 갑자기 들

어와 놀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단오의 머릿속에서 든 생각이었다. “이제 나와도 돼.” 그 사람이 유독 치아가 많아 보이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단오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무 옆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너 이름이 뭐야?” 단오는 예상치 못한 그의 질문에 당황했다. ‘격리구역’에 어떻게 들어온 거냐, 왜 들어온 거냐 물으면 답할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대뜸 이름이라니. 그는 질문에 이끌리듯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오라고 해...”

“단오... 이름 예쁘다. 난 이네야!”

단오는 멧쩍게 웃었다. 이네가 단오의 얼굴과 옷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물었다. “너 여기 처음이지? 말은 타 본 적 있어?”

“어, 처음이야... 말은... 집 마당에서 어렸을 때 타봤는데, 끈이랑 안장 없이는 못 타.” 단오는 집이라는 말을 꺼낸 것에 ‘아차!’ 싶었다. ‘유토피아 섬’ 전체에서 승마용으로 훈련된 말을 보유할 수 있는 곳은 ‘하얀 집’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네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 이네는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럼 오늘 나랑 타 보면 되겠다. 내가 앞에 앉을게. 따라와. 일단 집으로 가자.”

“어? 어... 그래.” 단오는 계속 멍한 얼굴로 이네를 따라 말 근처로 걸어갔다.

“애 이름은 나무야. 처음 보는 사람이라 낯을 좀 가릴 거야.”

‘동물도 이름이 있구나.’ 말은 까만 구슬 같은 눈으로 단오를 뵈히 쳐다보았다. 단오는 방금 한 생각이 읽혔다는 기분이 들어 어딘가 꺼림칙했다. 이네가 팔을 뻗어 말의 형클어진 갈기를 손가락으로 빚으며 말했다. “나무야, 오늘 집까지만 저 사람 좀 같이 태워줄래? 너 힘 엄청 센 거 다 알아. 미안하지만 부탁할게.” 말은 목을 길고 빼고 머리를 움직여 이네의 손을 갈기에서 빼낸 뒤 다리를 구부리고 부드럽게 앉았다. “고마워, 나무야.” 이네는 번쩍 뛰어올라 말에 오른 뒤 머뭇거리는 단오를 향해 타라는 손짓을 했다. 단오는 털에 신발이 쓸리지 않게 가만히 이네의 뒤에 올라앉았다.

“내 어깨 잡을래? 빨리 달리진 않을 거야.” 이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말이 별떡 일어섰다. 단오는 깜짝 놀라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세우며 이네의 어깨를 꼭 잡았다. 그는 열두 살이 되었을 무렵 승마교육을 처음 받으려 갔을 때 훈련사가 뒷자리에 앉아 그를 감싸고 끈을 쥐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첫 교육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마장의 말들이 전부 도망을 가버리는 대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승마장은 지금까지 삭막한 황무지로 방치되었다. ‘재갈을 물리지도 않은 야생마를 뒤에서 앞사람 어깨만 잡고 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단오는 허리를 꼳꼳하게 세우고 다리에 잔뜩 힘을 주었다. 말이 잔걸음으로 방향을 잡더니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몸이 떠오르며 덜컹거릴 때마다 이네의 머리카락에서 비 오는 날 올라오는 잔디밭 냄새가 났다. 이네는 갈기도 잡지 않고 옆으로 손을 뻗어 무성하게 늘어선 나뭇잎들을 스쳤다. ‘이 사람 뭘지...’ 단오는 떨어질까 무서워서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생각했다. 다 똑같아 보이는 우거진 숲길을 이리저리 지나자 어느새 나무들 사이로 탁 트인 들판이 보였다. 제멋대로 자란 풀과 들꽃으로 가득한 넓은 땅 한가운데 작은 집이 있었다. 그리고 들판의 끝에는 또다시 사방으로 숲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네가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저기야! 우리 집!” 말은 서서히 속도를 줄이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천천히 몸을 낮추었다. 이네는 망토 자락을 끌며 바닥에 폴짝 뛰어내린 뒤 단오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단오는 잠시 망설이다 이네의 손을 잡고 내려왔다. 이네가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고 많았어, 나무야. 얼른 가서 뛰어놀아.” 말은 몸을 일으켜 경중경중 들판을 향해 달려나갔다. 단오는 멀리서 세 마리의 다른 말들이 달려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이네의 집 벽에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빨간색 벽돌이 맞물려 있었다. 출입문 옆에는 나무로 된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벽면 끝에 걸친 길이로 보아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 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집에 들어설 때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더 정확하게는, 힘을 뺀 단오가 이네에게 붙들려 있었다. 이네가 문을 열자마자 진한 나무 냄새가 훅 풍겨오면서 벽 사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이 단오의 눈에 들어왔다. 한쪽 벽에는 무늬와 털 색깔이 조금씩 다른 말 그림 일곱 개가 걸려있었다. 단오는 다른 그림들로 시선을 옮기려다 말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열 걸음도 안 되는 크기의 방 중간에 끝이 동그란 침대와 책상이 마주 보고 있었다. 현관 반대편에 뚫린 작은 창문 옆에는 책이 가득 꽂혀 있는 네 칸짜리 나무 책꽂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작은 나무 개수대와 조리기구가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독특한 무늬가 새겨진 식기들이 눈에 띄었다. 단오는 마침내 이네의 손을 놓고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너 여기 혼자 사는 거야?”

“응 혼자 살아.” 이네는 글씨가 새겨진 넓은 나무 그릇을 꺼내더니 개수대 밑에 놓인 바구니에서 작고 빨간 열매를 한 움큼씩 쥐어 그릇에 담기 시작했다. 단오는 바쁘게 움직이는 이네의 손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릇에 적힌 글씨를 보고 천천히 작은 소리로 읽었다. “요...나단을... 찾습...니다?” 이네는 손을 멈추고 잠시 망설이는 듯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다가 바구니를 들고 일어섰다. “아, 이거.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며칠 전 내가 한밤중에 자다 깨서 잠결에 이걸 책상에 써놓고 다시 잠들었더라고. 왜 그랬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의미심장한 게 마음에 들어서 새겼어.”

‘의미심장한 게 마음에 들었다고?’ 단오는 당황한 나머지 입에서 튀어나오려는 물음을 간신히 막아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당황스러움을, 격리구역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발견했을 때, 맹수와 맞닥뜨렸을 때, 저 이상한 아이의 눈을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단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네 번째 느끼고 있었다. 단오는 놀람 뒤에 일종의 동질감과 환희가 고개를 내미는 것을 감지하며 대답했다. “무슨 이야기인데?”

이네가 짧게 웃고는 책상으로 걸음을 옮겼다. “일단 여기 앉아서 이거 먹자.”

자리에 앉으니 숲에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네의 옷이 단오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아직 구멍이 나지 않은 옷의 목 부분에 머리 없는 보라색 덧셈 기호와 작은 나뭇잎이 수 놓여 있었다. 이네가 바구니를 단오 쪽으로 밀며 빨간 열매 하나를 집어 먹고는 얇은 눈을 찡그려 활짝 웃었다. “먹어봐. 진짜 맛있어.” 단오는 이상할 정도로 생생한 이네의 웃음에 사로잡힌 채 고민할 틈도 없이 열매를 입에 넣었다. 어금니 사이로 향긋한 단물이 껌질을 뚫고 나오자, 단오의 혀바닥에 소름이 돋았다. 혀의 감각이 이토록 생생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빨리 기다리고 있는 이네의 시선에 답하기 위해 하얗고 여윈 손가락으로 다시 열매를 조심스레 한 움큼 쥐어 입에 털어 넣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네는 여기저기 주근깨가 찍힌 볼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친구 이야기야. 한 명은 다윗, 또 한 명이 요나단. 두 소년은 다른 세상에 살았어. 다윗은 시골 마을에서 양 떼를 돌보았고, 요나단은 왕자였지. 근데 어느 날 무시무시한 거인이 왕국을 쳐들어왔어. 왕은 거인을 무찌를 사람을 애타게 찾았는데, 어떤 소년이 돌덩이 몇 개로 거인을 이기겠다며 겁도 없이 찾아온 거야.”

“신기한 아이네. 돌 하나 던지기도 전에 거인에게 밟힐 확률만 아홉 할은 될 텐데.”

이네는 미소를 띠고 말을 이었다. “그 소년이 다윗이야. 근데, 다윗이 던진 작은 돌 하나가 정확히 거인의 두 눈썹 사이를 맞추었다? 거인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 그 날부터 그 작은 소년은 모두의 영웅이 되어 왕의 곁에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세계가 만난 거야.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 아주 깊은 우정이었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왕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어.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 몰래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왔고.” 단오는 입술 주위가 빨간색으로 범벅이 된 줄도 모르고 이네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

“그래서? 그래서 둘은 어떻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거인의 민족이 왕국을 쳐들어와서 왕이 죽게 돼. 같은 날 같은 싸움에서, 요나단도... 그렇게 다윗은... 슬퍼하며 다음 왕위에 올라.”

단오는 어느새 텅 빈 바구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비극이구나...”

“맞아, 비극이야...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친구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난 이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해.”

“난 비극이 좋은데. 그렇게 더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의 끝이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 단오는 씩씩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내뱉고는 이내 후회했다. 투명하게 반짝거리는 이네의 초록색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부드럽게 단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단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몇 시야?”

“여기 시계 없어. 난 시계 없이 살아.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건 어디까지가 점이고 선이고 면인지를 따지는 것과 같으니까.”

단오는 이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미 해가 저서 어두워져 있었다.

“큰일 났다. 나 지금 가야 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허겁지겁 신발을 신고 문을 여는 단오를 따라나서며 이네가 물었다.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어디로 가면 되는 건지 말해 줘. 나무 타고 가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단오가 대답했다. “너 숲에서 처음 본 그 자리에서 동서 방향으로 삼천 구백이십칠 걸음” 계속 특유의 평온함을 잃지 않던 이네의 표정이 흔들렸다. “어떻게 정확히 알아? 너 표범한테 정신없이 쫓기던 거 아니었어?”

“그냥 알아. 시간 없어, 이네야. 빨리!”

이네가 손을 들어 두어 번 크게 흔들자 그 나무라는 말이 멀리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빨리 달릴 거니까 내 허리 꼭 잡어.” 단오는 처음보다 한결 수월하게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지나왔던 길 그대로 세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계속 스치는 바람에 눈이 시리다 못해 눈물이 나고 몸이 들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참다 보니 어느새 도착해 있었다. 컴컴해진 숲의 공기를 뚫고 사방에서 무언가 파닥거리고 웅웅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장 멀리 보이는 곳에 통나무를 붙여놓은 높은 울타리가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말에서 내리자 이네가 물었다. “여기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야?” 단오는 누가 감시라도 하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고 검지를 입술에 데고는 선 자리에 그대로 앉아 떨어진 나뭇잎들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이 아래로 정확히 육천백칠십 걸음의 길이 있어. 길 끝에서 올라와 보니 그 맹수가 있었고.” 이네는 단오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 말고 잠시 동상처럼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비밀 통로라도 있다는 거야? 그런 거라면 내가 여태껏 못 찾았을 리가 없는 데...” 단오 옆에 바짝 다가와 쭈그려 앉은 이네가 다시 물었다. “그래서, 반대편 끝은 어디인데?”

“우리 집... 어... 마당. 좀 큰... 마당.” 단오는 그 마당이 하얀 집의 승마장이라는 것을 숨겨 버리고 찼찼한 마음을 덮기 위해 급하게 질문을 꺼냈다. “근데 너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본 거야?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왜 왔는지 그런 것 전부.”

“다시 보고 싶어서. 다음에 보면 물어보려고.”

단오는 얼굴에 온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결눈으로 보이는 이네의 웃는 얼굴을 돌아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나뭇잎 더미와 얇은 흙층을 전부 걷어냈더니 손잡이가 달리고 녹이 쓴 원 모양의 철판이 드러났다. 땅과 거의 평평하게 지어져 그 자리만 걱정하고 파헤치지 않는 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 입구였다. 단오가 일어나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힘껏 당기자, 사람 둘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나왔다. 단오가 고개를 돌려 이네와 눈을 맞추었다. “갈게. 오늘 고마웠어.”

“나 전부 다 궁금하니까 다음에 또 와 줄래? 기다릴게.”

단오는 이네의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하고 불살이 말라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미소만 띠며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 어떤 일에도 자동으로 수치화 작업을 시작하는 단오의 뇌가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는 걸음 수를 세기 시작했지만 이내 멈추라는 지시를 받고는 그만두었다. 암흑의 끝이 없을지 모른다는 처음의 불안감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단오는 아주 오랜만에 머리를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축축한 흙냄새에 싸여 걷고 또 걸었다. 지상의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올 때까지. 단오에게 그것은 전혀 반가울 만한 것이 아닌, 숨통을 조이는, 그런 빛이었다. 머리 위 출구의 마개를 열고 있는 힘껏 뛰어오르자마자 단오는 아무도 없는 승마장의 시계를 확인하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여덟 시 오십 분이네. 아슬아슬했어.’ 삭막한 승마장은 이네의 집 앞에 펼쳐진 들꽃밭과 비교가 되어 더 삭막하게 보였다. 새까매진 하늘 때문에 유독 더 새하얗게 보이는 하얀 집이 웅장한 기둥을 뺀 단오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2

“단오님, 입술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근무 시간을 십 분 남기고 하품을 하던 문지기가 단오의 얼굴을 알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석께서는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단오는 옷깃으로 입술을 문질러 닦으며 급하게 문에 들어섰다. 곧장 뺀 길고 어두운 복도의 끝에서 주석의 방문 밑으로 새어나 오는 불빛이 보였다. 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고 건조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어가는데 오른쪽 벽에 몸을 바짝 기대고 서 있던 사무관이 돌연 튀어나오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석께서 지금 처리할 일이 많아 바쁘시다 합니다. 성과기록표 보고는 내일 받으시겠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단오는 사무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쟁쟁하게 답하고는 발걸음이 경쾌해지는 것을 최대한 참으며 방으로 향했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네모반듯한 계단을 올라가면 가장 가까운 곳에 단오의 방이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하얀색이었는데, 아주 대단한 기술로 색깔을 빼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탓에 꾸밈이 없어도 검소해 보이지 않았다. 한 가지 좋은 점은, 흰색 배경이 깡마르고 창백한 얼굴의 단오를 그나마 생기 있어 보이게 한다는 것이었다. 하얀 집의 모든 불빛이 꺼지기까지 남은 한 시간 동안 단오는 하얀 적막에 싸여 멎어진 얼굴로 잘 준비를 했다. 그리고 책상에 내일 수업을 위한 네 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놓은 뒤 멍하니 글자를 응시했다. 단오의 뛰어난 두뇌가 무의식적으로 글자의 위치와 모양을 기록하는 동안 정작 의미 있게 들어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책을 덮고 침대에 풍덩 몸을 던졌다. 하얀 천장에 이네의 웃는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르자, 불이 꺼졌다.

단오는 사방이 어두워져도 사라지지 않는 이네의 얼굴을 훑으려 돌아누웠지만 도리어 초록색 눈만 더 반짝거릴 뿐이었다. 이네의 눈은 그가 살면서 보았던 속이 텅 빈 수많은 눈동자와 다르게 알 수 없는 힘으로 꼭 차 있었다. 그 눈을 처음 보았을 때 단오의 마음을 훑 치고 들

어온 감정이 다시 올라오려 하자, 그는 이불 속에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내의 얼굴이 흠어지니 이번엔 맹수의 노란 눈이 매섭게 바라보았다. 단오는 안 되겠다 싶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책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서랍에서 굵은 공책을 꺼내 빈 장을 편 다음 달빛을 받으며 글씨를 적기 시작했다. *검은 진주가 박힌 노란색 구슬, 물을 툇툇 떨어뜨리는 고드름, 일렁이며 반짝이는 새까만 파도...* 달빛이 햇빛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까지, 단오는 한참을 그렇게 써 내려갔다.

가을 아침의 공기는 창문을 열어놓지 않았는데도 방을 차갑게 했다. 단오는 멍한 머리와 울렁거리는 속을 누르기 위해 책상 한쪽에 놓인 찻잎을 한 손가락 가득 퍼서 입에 넣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쓴맛이 온몸을 각성시켰다. 단오는 피곤한 눈꺼풀 때문에 평소보다 더 멍해진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목 부분에 보라색만 제외한 무지개색이 하나씩 줄지어 담긴 여섯 개의 대리석 단추들이 거울 유리에 비쳐 윤이 났다. 단오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아래로 묶으며 힘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일 교시는 빨강, 이 교시는 주황, 삼 교시는 노랑... 초록... 파랑... 일 교시는 빨강...” 거울 속에서 쌍꺼풀이 진 깊은 눈망울이 깜빡임을 잊고 잠시 멈추었다가 콧날과 핏기없는 입술을 타고 시선을 옮겼다. 단오는 머리빗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책상에 널린 여섯 권의 책과 필통을 가방에 한꺼번에 쓸어 담은 뒤 교실로 향했다. 교실이 있는 건물은 단오의 방이 있는 하얀 집 두 번째 층과 통로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하얀 집만큼이나 거대한 크기에 색깔은 얼룩진 회색이었지만 사람들은 두 건물을 합쳐서 ‘하얀 집’이라고 불렀다. 섬사람 모두가 우러러보는 최상의 정치기구와 최고의 교육기관을 잇는 삭막한 통로를 매일 아침 지나올 때면 단오의 손발은 차가워졌다.

교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오를 향했다. 오른쪽 가슴에 하나씩 달린 빨간색 표식 때문에 단오에게는 그들의 눈이 세 개인 것처럼 보였다. 그가 멋쩍게 웃으며 목례를 한 뒤 자리에 앉자, 강단에서 자료를 보고 있던 교수가 몸을 꼳꼳하게 세웠다.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은 이 섬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고귀한 학문을 하는 여섯 집단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빨간 표식을 단 사람들입니다. 아, 물론 저기 여섯 표식을 모두 갖추신 단오님도 있지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을 동안, 이 섬의 아래에는 지성이 부족하여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땀 흘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 ‘베데스다¹⁾ 구역’에는, 맹수창고의 배설물을 치우며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합당한 위치와 보상을 제공하면서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이 훌륭한 사회체제의 호의에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한시라도 방심하거나 성과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그곳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교수의 얼굴은 빠르고 역동적인 말소리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무표정이었다. 단오는 울렁거리는 속이 더 뒤집히는 것 같아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점심시간까지 버티기 위해서 그는 단색으로 딱 채워진 책 표지에 온 정신을 집중하려 애써야 했다. 서서히 빨간색에 정신이 빨려 들어가자, 교수가 하는 말이 웅웅거리는 소리로 변해 더이상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단오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리가 알아서 모든 학습 작용을 수행했을 것이고, 단오

1) 아람어로 ‘은혜(자비)의 집’을 뜻한다.

는 필요할 때 적절히 그 결과물을 출력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 자체를 식별하지 못한 적은 처음이었다. 배경처럼 뒤로 물러난 교수의 목소리 위로 이네의 낮은 목소리가 귀를 맴돌았다. ‘괜찮아... 괜찮아... 나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단오는 다음 교시에도 한없이 책표지에 빨려 들어갔다.

오전 수업의 끝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문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차례로 줄을 지어 교실을 나섰다. 단오가 무거운 가방을 끌고 나와 식당으로 향하기 위해 왼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미소를 짓고 있는 반가운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진유 선생님!” 단오의 날뛰던 속이 한순간에 가라앉으며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단오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달싹이는 입술을 깨물며 금방이라도 떨어 것 같은 발을 애써 누르고는 그를 향해 절도 있게 걸어갔다. 단오가 가까이 다가서자 그가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다. “너 웃는 거 다 보여. 밥 먹으러 가자.” 단오는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참던 웃음을 풀어 입꼬리를 올렸다. 복도 끝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며 진유가 말했다.

“너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인다.”

“아,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단오와 발맞춰 계단을 내려가던 진유의 발이 잠시 멈칫했다. “너 그러면 또 머리 깨지잖아. 왜 그랬어.”

“괜찮아요. 살짝 예감이 안 좋기는 한데, 뭐 올 테면 오라지요. 별수 있나요.”

첫 번째 층에 내려가면 바로 식당 문이 나왔는데, 천장이 갑자기 높아지는 탓에 어릴 적 단오는 자주 겁을 먹곤 했다. 문을 들어서니 같은 색 표식을 달고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이 오전 수업에서 배운 것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었다. 단오는 진유를 따라 번호가 적힌 표 말을 들고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몇 초 지나지 않아 흰색 앞치마를 두른 직원이 식판 두 개를 놓고 갔다. 점심시간에는 매일 새로운 종류의 걸쭉한 죽이 나왔는데, 대부분 똑같이 맛은 없었다. 그렇지 않은 날에도 입이 짧은 단오는 항상 몇 숟가락 뜨지 않고 버리곤 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와의 금쪽같은 대화 시간을 빼먹고 땅으로 꺼져버리신 소감을 말씀해 보시죠, 단오님. 일주일의 유일한 휴식을 희생한 보람이 있었는지요” 진유가 선량하게 풀린 푸른색 눈을 짓궂게 치켜뜨며 특유의 느릿한 말투로 물었다. 단오는 답을 하려다 말고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마흔에 접어든 사람이라기에는 단오와 다섯 살도 차이나 보이지 않는 얼굴이 새삼 신비스러워 보였다. 다른 정규 교수들이 검은색이나 회색의 정장을 입을 때 그는 연하늘색 겹옷에 알록달록한 타이를 매고 다녔는데,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눈초리를 샀다. 단오는 갈기처럼 부드럽게 귀를 덮는 그의 갈색 머리로 시선을 옮기며 입을 열었다.

“이상한 아이를 만났어요... 너무 예쁜 초록 눈을 가진 제 또래였는데, 진짜 이상했어요. 말도 이상하고, 사는 곳도 이상하고, 먹는 것도 이상하고...”

단오의 예상과 달리 진유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놀라지 않았다. 그는 눈에 슬픈 빛을 띠고 작게 중얼거렸다. “벌써 그렇게 컸구나...”

“네? 그 아이를 아세요, 선생님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진유가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단오야... 거기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되도록 자주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주석께서 네가 격리구역에 간 걸 알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테니까. 네가 어제 그 통로를 발견하지만 않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처럼 휴식 시간 안에 갔다 오기만 하면 어머니께 들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격리구역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큰 공간의 존재를... 왜 이제껏 제가

물랐을까요.”

진유가 죽을 뜬 첫 손가락을 입에 넣고 미간을 찌푸리며 단오에게 되물었다. “단오야 넌 옷에 달린 그 여섯 단추의 학문이 갖는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진유의 시선이 알록달록한 동그라미 사이를 건너다녔다.

“그야 일단 재미가 없지요. 애매모호한 것은 무조건 없애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섬 전체에서 성과기록표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요.”

“음, 맞아. 한 가지 더는, 모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다룬다는 거야. 하얀 집만이 아니라 이 섬 곳곳의 모든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이론과 기술도...”

단오는 그가 너무 당연한 사실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의아해서 물었다. “근데 그게 왜요?”

“그런데 단오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다루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가요? 그게 격리구역이 생긴 일이라 무슨 관련이 있지요? 그 아이는 왜 거기 혼자 사는 건데요?” 단오는 머리를 스치는 질문을 폭풍같이 쏟아내었다. 진유가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 아이에게 직접 들어. 난 여기까지만.” 진유의 목소리가 워낙 단단했던 탓에 단오는 더 묻지 못하고 식판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궁금증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려 화제를 돌리려는데 진유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제는, 뭐 때문에 그렇게 잠을 못 잔 거야?”

단오는 질문에 답하려면 다시 이네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허탈해졌다. “그 아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 내내 기록하다 잤지요. 다 쓰고 나면 기억을 내보낼 수 있을까 해서...”

진유도 허탈한 듯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그랬구나... 공책 있어?”

단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진유에게 내밀었다. 단오의 공책을 받아 들고 종이를 뒤적거리며 날아다니는 글씨를 훑던 진유가 공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나지막이 말했다. “잘 썼네... 나는 네가 아까워. 이 세계가 너를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본인이 가르쳐 놓고서는... 하얀 집 학생들 전부 선생님 없었으면 다 문장 하나 쓸 줄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 수업은 꼬맹이 때 손톱만큼밖에 못 들었지만.” 단오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다. 그는 화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던져 버렸다. “주세요, 제 공책. 일어납시다. 그 맛도 없는 죽을 뭐하러 꾸역꾸역 먹고 계세요.”

진유가 단오와 눈을 똑바로 맞추며 공책을 내밀었다. 그의 평온한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 난 맛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잠시 침묵이 흐르고 진유의 말이 이어졌다. “난 아직도 여섯 살 꼬마의 반짝이던 눈을 기억한다. 널 괴롭히는 능력 따위 타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얀 집 성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더 가르치지 못한다는 건 정말이지...” 진유의 말에 한동안 잠잠해졌던 단오의 소화기관이 다시 날뛰기 시작했다.

“죄송하지만 저 먼저 일어날게요, 선생님. 속이 안 좋아요.”

단오는 음식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식판을 그대로 두고 일어났다. 식당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급히 문 쪽으로 향하는데, 그의 시야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단오의 눈에 비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 번개처럼 번쩍거리는 빛이 점점 번져갔다. ‘전조증상이다... 올 것이 왔구나.’ 단오는 곧 깨질 듯한 머리의 통증이 올라올 것에 잔뜩 긴장한 채로 정신없이 방으로 달려갔다.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번쩍거리는 빛이 시야를 완전히 덮어 겨우 앞을 분간할 수 있었다. 단오는 서랍에서 약을 꺼내 입에 털어 넣고는 침대에 몸을 누였다. ‘빨리 잠들어야 해. 빨리...’ 단오의 눈이 감기자마자 지난밤 쌓였던 잠이 금세 쏟아졌다.

단오는 꿈속에서 텅 빈 거리에 서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처음 보는 높은 유리 건물들이 양옆에 늘어서 있었는데, 고개를 최대한 들어도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희뿌연 하늘에서 날개가 달린 이상한 비행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더니 정면에서 사람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모두 코와 입을 하얀색 천으로 가리고 있었다. 서로를 밀쳐내며 다가오던 사람들이 단오 앞에서 하나둘씩 가슴을 부여잡고 기침을 하며 쓰러졌다. 단오는 겁에 질려서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순간 반대편 길에서 화염이 쏟아지며 장면이 바뀌었다. 나무들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 숲이었다. 단오는 금세 차오른 열기와 매연에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가 풀썩 자리에 앉으며 속삭였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갈 때 단오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는 몸을 일으켜 숨을 들이쉬고 헛기침을 했다. 온몸이 차가운 땀에 젖어 있었다. 한동안 시간이 멈춘 듯 멍하니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말씀하십시오.”

“단오님, 사무관입니다. 오 분 뒤면 식사가 시작되는데 아직이신가요?”

단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계를 확인하니 다섯 시 오십 분이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나갑니다.”

지하에 있는 집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얀 집 각 부의 대표 여섯 명이 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식탁에는 투박하게 잘린 고기가 잔뜩 쌓여 있는 접시와 죽이 담긴 커다란 냄비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었는데, 한눈에 보아도 모인 사람들이 다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었다. 단오는 문 앞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황급히 주석과 반대편에 있는 자리로 가서 소리 나지 않게 앉았다. 단오와 눈이 마주치고 짧게 눈짓을 한 사무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안녕.’ 그저 대표들의 옷에 하나씩 박힌 빨갛고 노랗고 파란 여섯 색깔의 단추들만이 단오에게 인사를 건넨 뿐이었다. 숨 막히는 침묵을 깨고 주석이 입을 열었다. “단오, 왜 늦었어? 오후 수업 때도 내내 자리를 비웠다고 들었는데.” 단오는 식기를 들려다 말고 고개를 들어 주석을 바라보았다. 주석의 이목구비는 놀라울 정도로 단오와 닮아 있었지만, 혈색은 단오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주석은 단오처럼 검고 긴 머리카락을 올려 묶고 몸에 꼭 맞는 투박한 하얀색 정장 차림이었는데, 단오는 그와 한집에 지내면서도 그가 다른 옷을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점심시간에 편두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오후 내내 잠들어 있었습시다.” 주석의 절제된 얼굴에 무안한 표정이 비쳤다. 단오가 다시 정적을 깨고 말했다.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숲이 불에 타고 있었는데...”

맞은 편에 앉은 ‘파란 대표’가 접시에 음식을 담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악몽이야 섬사람 전부가 매일 꾸는데 굳이 화제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은 성과 수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배출해내는 것이고요. 악몽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감정을 누르는 것에 마땅한 대가입니다.” 단오는 눈에 힘을 주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음식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단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이번엔...”

“앞으로는 신체 관리를 잘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주석이 단오의 말을 끊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대답만 하고 넘어갔을 텐데 단오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반항심이 올라왔다.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시다, 주석님. 어차피 지나간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구분하는 건 점, 선, 면의 경계를 따지는 것과 같다고, 누가 그러더군요.”

사람들은 당황한 듯 단오와 주석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이내 짧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색

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단오의 옆에서 ‘초록 대표’가 술 없는 회색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그래도 주석님의 천재적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임기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만큼 매년 모든 분야에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요. 단오님은 분명 다음 주석이 되실 텐데, 편두통 따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저를 앞서야지요. 저 아이는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지성을 쓰는 사람이 두통이라니... 더 심해져서 성과기록표 수치가 몸 쓰는 사람보다도 낮아질지 누가 압니까.” 주석이 혼잣말처럼 작은 소리로 대꾸했다. 단오는 침을 넘기는 목구멍이 좁아지는 것을 느꼈다. 대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다시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다. 식기구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만 높은 천장에 눈치 없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식사가 모두 끝나자, 대표들은 약속이나 한 듯 황급히 일어나 위층으로 올라갔다. 단오는 주석을 따라 마지막 계단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과 악수를 할 때마다 모두가 똑같은 인사말을 했는데, 웃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표들이 주석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의 양옆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주석이 목소리를 깔고 단오에게 말했다. “따라와.” 단오는 앞서가는 주석과 세 걸음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방 안에 들어서자, 주석이 여기저기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3시간 32분... 오늘 네 성과기록표에 누락 된 시간이야. 어떻게 할 거야?” 단오는 그의 건조한 표정과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정확히 1시간 46분씩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너 같은 돌연변이가 왜 하필 나한테서 나왔는지... 이 섬에선 모두가 건강한 신체구조를 타고난다. 이곳에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부터 몸이 열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근데 왜 하필 예외가 너라는 말이야...”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오는 빠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삼키며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저도 이런 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주석의 들끓는 화를 덮고 있는 덤덤한 얼굴이 점점 더 무서워 보였다.

“명심해라. 우리의 피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오로지 능력과 성과 수치 때문이다.” 주석이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방을 나갔다.

단오는 그가 열고 나간 방문을 닫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한참을, 하얀 벽에 기대앉아 쉼쉼 숨을 죽여 울었다. 심장이 빠근해지고 시야가 뿌옇게 되었을 무렵, 예고 없이 그의 머릿속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요나단을 찾습니다... 요나단을 찾습니다...*’ 단오는 눈물을 닦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벌떡 일어나 창문을 내다보았다. 창문 아래로 폭신한 잔디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가야겠어. 이네에게.*’ 생각이 든 동시에 단오는 열린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만만하게 본 높이였는데, 잔디가 예상보다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무릎에 쿡쿡 쑤시는 통증이 올라왔다. 그러나 그는 꾸물거리지 않고 문지기가 없는 뒷문을 지나 승마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비밀 통로의 뚜껑을 열고 내려가서는 어둠 속을 세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호흡기가 점점 힘에 부치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통로의 끝에서 달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 보이자, 단오는 땀으로 흥건해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통로를 나와서도 이네의 집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 단오의 작은 입술에서 새어 나온 웃음이 얼굴 전체로 점점 더 크게 번져갔다. 단오는 숨이 차오를 때마다 이네의 이름을 속삭이며 달리고 또 달렸다.

이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반달이 조명처럼 지붕을 내리쬐고 있었다. 그가 바로 문을 두드리려다 말고 잠시 무릎을 짚어 숨을 고르는데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벌컥 열렸다.

“단오야...” 그토록 머리를 맴돌던 이네의 목소리와 눈동자가 다시 생생하게 단오의 마음을 쿵 쿵 울렸다. “들어와.” 집에 들어서며 단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려 하자, 이네가 쥔쥔하게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단오는 계속 숨을 몰아쉬며 멍쩍게 웃었다. “고마워.” 이네는 이번에도 찾아온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땀으로 얼룩진 단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여러 색깔의 천 조각이 엮어진 손수건을 내밀뿐이었다. 책상 위에서 촛불이 노랗게 타오르고 있었다. 단오가 땀을 닦아 내며 천장에 달린 전구를 확인하고는 작동기를 찾아 두리번거리자, 이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거 고장 난 지 오래되었어. 초가 다 탈 때까지 그냥 두자. 그게 마음이 더 편안하거든.”

단오는 책상에 앉아 이네가 가져온 물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다. 평범한 물이라고 하기엔 설 탕을 탄 듯 달콤했다. 이네는 턱을 괴고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듯 잔뜩 부어오른 단오의 눈에 시선을 고정했다. 단오가 한참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자, 이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단오야, 넌 유토피아 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

“아니... 한번도 궁금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해?” 단오는 이네의 입에서 또 무언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주 오랜 옛날에, 이 섬보다 훨씬 넓은 세상이 있었다. 그 세상을 만든 창조자는 모두가 똑같이 세상을 누리면서 행복하기를 바랐어. 그래서 각 생명체가 아주 정교한 설계도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정했지. 사람과 자연은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세상을 만든 창조자? 그게 누구데?”

“나도 몰라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알려진 게 별로 없어. 근데 행복에 지루해진 사람들이 자기 것도 아닌 세상에 자기들만의 이상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가만히 있어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싸워 이겨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힘을 가진 이는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힘이 없는 이는 점점 더 빼앗기게 되었지. 금세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필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연은 병들어갔어. 강한 사람들이 온갖 찬란한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켰지만 그건 일부만의 것이었지.”

“얼마나 대단하게 발전시켰길래 찬란하기까지 해?” 단오에게 기술과 찬란함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했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 창조자가 설계한 세상은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전체가 파괴되게 만들어졌던 거야. 어느 날 아주 무서운 병이 든 맹수가 인간이 사는 곳에 내려와서는 병을 퍼뜨렸고, 여러 사람이 순식간에 죽어 나가기 시작했어. 머지않아 온 세상에 병이 퍼지게 되었지.”

단오는 꿈에서 흰색 천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죽어가던 모습과 불에 타들어 가던 숲을 떠올리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맹수창고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이네는 단오의 말을 듣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계속했다.

“살아남은 건강한 사람들은 모여서 창조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요구했어. 다시 이상국을 세우기 위해 먹고 사는 데 가장 필요한 여섯 기술에 뛰어난 여섯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지. 마음 약한 창조자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 자신의 대리인을 불러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의 비밀을 넘기고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지. 단, 이전 세계에서 쌓아놓은 업적은 절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말이야.”

“왜 창조자는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부른 거야?”

“나도 궁금해, 그제. 창조자는 내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어.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반짝임 때문인지 이네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힌 것처럼 보였다. 그가 말을 이었다. “지도자들은 텅 빈 새 땅에 자리를 잡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남김없이 끌어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단순한 기준으로 복잡하게*, 사람의 능력을 재는 도구를 만들어 가장 잘하는 일을 맡기자고 모두가 동의했대. 근데 사람들은, 원래의 규칙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경쟁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것에 차이를 두기로 했지. 창조자의 대리인은 다시 전과 같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지도자들은 그를 무시했어. 능력에 따른 차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전의 차별보다 훨씬 정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말이야. 그중 가장 능력이 뛰어나 모두의 주석이 된 지도자는 대리인이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격리해 버렸지.”

단오는 불길한 예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이네의 말을 끊었다. “믿고 싶지 않아. 비현실적인 데다 너무 추상적이잖아. 네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단오의 바람과 달리 이네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 이 숲에 말이야. 그와 그의 가족이 이 섬의 누구와도 닿지 못하도록... 그 설계도의 비밀은 영원히 갇히고 만 거야. 사실이야 아무도 모르지.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이야기하고,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일 뿐이니까. 근데 때로는 그 믿음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기도 해. 그 대리인이 내 할머니의 할아버지 정도라고 하면, 믿어줄래?” 이네는 진심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는 말투로 말했다. 단오는 흘러내리는 땀을 멍하니 바라보며 되물었다. “다른 가족은?”

“엄마는, 내가 열 살 때 어디론가 사라졌어. 바깥사람인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를 떠났고. 여기 말들이 내 가족이야.” 이네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지나칠 정도로 덤덤했다. 단오는 당황한 얼굴을 숨기기 위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도 넌 좋아하는 가족이 있어서 좋겠다. 나한테는 가족이란 게 의미가 없거든.” 이네가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단오는 숨을 크게 내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천재래. 여섯 살 생일 때 내 방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어. 알록달록한 단추 여섯 개를 주고 갔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 나중에 듣기로는 그게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시간이었대. 그 날 이후부터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실에 앉아 있게 되었어. 다 같은 색깔끼리 모인 자리에 나만 알록달록하게 앉아서...”

“그렇게 하루종일 배우는 게 뭔데?”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초록... 뭐 그런 것... 숫자랑 기호만 가득한 그런 것...”

“뭔지는 몰라도 안 좋아하는구나. 이름도 말하기 싫어하는 것 보면...” 단오의 옷에 박힌 단추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이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책꽂이에서 표지가 겨우 붙어서 너덜거리는 책 하나를 뽑아 왔다.

“이런 거야?”

단오는 이네가 건네는 책을 펼치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책에는 단오의 머리에 기록된 것과 같은 모양의 글자와 기호가 나열되어 있었다. “네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

“맞구나. 이런 낡은 책이 다섯 권 더 있어 저기. 아주 오래된 것들이래. 아마 그분이 격리되기 전에 가져온 책인 것 같아. 나도 질리도록 읽었는데, 꼭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조각 맞추기

같지 않아? 세상을 이루는 작은 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주 정교하고도 복잡한 법칙을 말해주는 책이잖아. 숫자와 기호가 좀 불친절해 보이긴 하지만.” 단오는 이네가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틀린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 가장 익숙한 말을 아무렇게나 꺼내버렸다.

“아니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금세 망해버릴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성과를 내야만 행복하니까.”

“그 성과가 뭘데? 난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이지 않아? 넌 그래서 행복해?” 단오는 말문이 막힌 채 이네의 눈만 바라보았다. 노란 촛불이 비쳐서 어른거리는 이네의 눈동자가 또다시 단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단오의 속이 짙 조여오며 슬금슬금 눈물이 올라왔다. 입술을 깨물어 막아보려 했지만, 눈물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흘러내려 버렸다.

“아니... 아니, 행복하지 않아... 태어나보니 주석의 딸이었는데, 그래서 남들이 그토록 바라는 능력을 한꺼번에 타고났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이네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단오 앞에 쫓그려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뻗어 단오의 등을 감싸 안고 토닥였다. 단오는 이네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영영 소리 내어 눈물을 쏟아냈다. 단오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눈물이 멈추자 단오의 숨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단오는 윗몸을 일으켜 눈물을 닦고는 이네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설계도의 비밀은 그래서, 알고 있는 거야?”

“아니, 나도 몰라. 그분은 가족에게조차 아무것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거든.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가까이 있다는 말만 하고 가셨대.”

‘그게 다가 아니야, 그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단오의 머릿속에서 진유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단오가 오래 찾던 물건을 찾은 사람처럼 다급하게 물었다.

“너 혹시, 진유라는 사람을 알아?”

“아니 처음 들어. 나한테 바깥사람은 내가 처음이야. 그 사람이 누군데?”

“모르는구나... 내 오랜 선생님인데, 방금 네 말이랑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 너도 아시는 것 같았고...”

“나를 안다고? 그럴 리가.” 이네는 솜털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책상 위의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 가고 있었다. 이네가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하더니 뭉개진 발음으로 물었다. “너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

단오는 이네의 말에 마음이 들뜨면서 관자놀이가 따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일탈을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웠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응, 그럴래. 해 뜨기 전에만 돌아가면 돼. 아침 여섯 시면 문지기가 도착하거든.”

“아주 좋아.”

단오는 이네를 따라 침대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는 코끝까지 이불을 끌어 올렸다. “이불냄새 좋다... 포근해.” 손끝과 발끝에서 온기가 서서히 퍼지자 단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네는 콧김으로 웃음을 내보내며 발가락으로 단오의 발바닥을 간지럽혔다. 졸음을 내쫓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이불 속에서 터져 나왔다. 단오가 눈을 감은 채로 입을 열었다. “나 있잖아. 몇 년 전에 정말 숨을 끊어버리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 그때 진유 선생님이랑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끝나고 보니까 내가 웃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고, 조금 전까지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괴리감을 잘 기억하라고. 근데 널 보니까, 여기 오니까... 비슷한 느낌이 들어. 정말 같은 섬이 아닌 것 같아. 아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야.” 이미 선잠이 든 이네가 단오 쪽

으로 돌아누우며 속삭였다. “나도 좋아, 네가...”

단오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 내내 뒤척였다. 누구 옆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가도 이네의 손끝이라도 닿으면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기를 반복했다. 깜깜했던 창문 밖이 어렴풋이 밝아오자 그는 이네가 깨지 않게 가만히 침대에서 일어나 집을 나왔다. 그리고 고요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토끼처럼 경쾌한 걸음으로 숲에 뛰어들어갔다.

4

그날 이후부터 일주일에 단 두 시간 주어지는 단오의 휴식 시간은 이네의 것이 되었다. 단오는 진유에게 이네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털어놓지 않으면 자신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엉터리 논리로 가장 좋아하는 선생의 만류를 이겨버렸다. 진유가 계속해서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양 그 이야기를 감추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어쨌든 덕분에 비밀 통로를 마음껏 드나들 구실이 생겼으므로 단오에게는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그 두 시간의 쿼는 행복을 기다리는 동안 하얀 집에서의 나머지 시간은 버릴 만한 것이 되었다. 이네를 만나는 날이면 아침부터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단오와 달리, 이네는 단오가 찾아올 때의 갑작스러운 반가움을 느끼고 싶다면 시계를 주겠다는 단오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루는 단오가 이네의 집 문을 두드리기 무섭게 이네가 벌떡 열고 나오더니 잔뜩 상기된 얼굴로 소리쳤다. “단오야, 나랑 물감놀이하자! 네 그림을 벽에 걸고 싶어.” 이네의 그런 갑작스러운 엉뚱함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나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같이 할 거니까 괜찮아.”

이네는 책꽂이의 가장 아래 칸에서 얇은 나무판 하나와 작은 상자를 꺼내오더니 비장하게 단오 앞에 내려놓았다. 상자의 뚜껑이 열리자, 뭐라 특정 짓기 애매한 다섯 색깔의 물감이 얼룩덜룩한 유리병에 담겨 있는 것이 단오의 눈에 들어왔다. 이네는 잠시 망설이다가 빨간색에 조금 더 가까운 보랏빛 물감통을 집어 들고는 단오에게 말했다.

“손바닥 펴 봐, 단오야.” 단오는 순순히 손바닥을 내밀었는데, 곧바로 이네가 그 위에 물감을 붓자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이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미소를 띠고 이번엔 초록색인지 노란색인지 분간이 힘든 색을 꺼내 자신의 왼손바닥에 흥건히 쏟아부었다. “자, 내가 하나둘셋 하면 동시에 여기 판에 손바닥을 찍는 거야!”

단오는 어리둥절한 채로 이네의 말을 따랐다. 두 손바닥이 동시에 판에 닿자 초록빛과 보랏빛 손바닥이 서로를 마주 보고 선명하게 찍혔다. 가장 긴 두 중지의 끝이 아슬아슬하게 닿는 것을 피했다. 물감이 덜 묻은 새끼손가락 부분에는 지문이 거칠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처음보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은 네 차례야. 내가 찍는 대로 따라갈게.” 단오의 보랏빛 손에 자유가 쥐어졌다. 그 자유는 고작 나무판 크기였지만 단오는 하늘보다 더 넓은 자유를 가진 것 같았다.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짜릿함이 단오의 마음에 조금씩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단오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천천히 손을 뻗어 초록빛으로 찍힌 손바닥과 오른쪽에서 반 정도 겹쳐지게 손을 내려 꼭 눌렀다. 엄지와 검지가 이네의 손바닥에서 옮겨온 초록빛 물감으로 얼룩져 무늬가 생겼다. 조용히 지켜보던 이네는 단오가 처음 찍은 것과 왼쪽에서 겹쳐지게 손바닥을 내려놓았다. 겹쳐진 두 쌍의 손바닥이 단오는 꽤 만족스러웠다. 단오가 멍하니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언가 미끌미끌한 것이 코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네가 손가락으로 단오의 코에 물감을 묻히고 있었다. 이네는 단오와 눈이 마주치자 손가락을 꺾싸게 떼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당황한 단오

가 반사적으로 눈에 힘을 주며 미간을 찌푸렸다. 멧쩍었는지 이네는 웃음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 저기 봐!” 단오가 이네를 따라 창문을 보니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밖에 비 온다!” 손바닥 째기엔 집중하느라 들리지 않던 빗소리가 그제야 단오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네는 책상 위에 있던 수건에 물을 적셔 급하게 손바닥을 닦고는 단오에게 수건을 내밀며 말했다. “단오야, 우리 지금 나가자.”

“지금? 비에 젖을 텐데?” 단오는 물감이 묻지 않은 수건의 여백을 잡고 손바닥의 물감을 천천히 지워냈다.

“너 비 한 번도 안 맞아 봤지? 이건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느낌이야.” 말을 끝내기 무섭게 이네는 아직 덜 닦여서 얼룩이 남은 단오의 손을 잡아끌었다. 문 앞에서 단오가 망설이는 듯 발을 멈추자 이네가 먼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작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이네의 헐렁한 옷 위에 내려앉으며 동그란 자국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네는 눈코입에도 떨어지는 물방울에 눈을 찡긍하고는 하얀 이가 끝까지 드러나게 활짝 웃으며 단오에게 나오라는 손짓을 했다. 아주 잠깐, 단오의 눈에 그런 이네의 모습이 꿈속 장면처럼 느릿하고 뿌옇게 보였다. 빗속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이네의 얼굴은 단오가 이제껏 본 사람의 표정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이었다. 이제 단오에겐 그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도망칠 핑곗거리가 더이상 없었다. 그가 천천히 발을 내밀어 행복의 문에 들어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온몸을 간지럽혔다. 단오는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평소처럼 소리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네가 단오를 따라서 더 크게 웃음을 터뜨리자, 단오도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배가 쓰라리도록 웃었다. 단오는 자신의 성대가 그렇게 큰 소리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 우습다고 생각했다. 한바탕 웃음이 잦아들자 이네가 물었다. “어때, 괜찮지?” 단오는 아직 웃음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는 이제부터다, 따라와!” 이네가 뒤돌아 하얀색 계란꽃이 가득한 들판으로 달려나갔다. 단오는 따라오라는 이네의 말에 그가 보여줄 곳이라도 있는 줄 알고 따라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내 그들이 가는 방향에 아무런 규칙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더 달리니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는 얼굴 위로 떨어지는 차가운 빗방울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옆에서 달리는 이네가 두 팔을 벌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소리쳤다. “이 느낌이야! 바로 이 기분!” 단오도 이네를 따라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비와 바람이 손바닥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가는데, 날개를 달고 날아오른 듯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단오의 마음에 벽차올랐다. 두 사람은 야생마처럼 한참을 그렇게 비 내리는 들꽃 바다를 달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옷이 물기에 무거워질 때 즈음 이네와 단오는 발의 속도를 늦추고 땅바닥에 나란히 널브러졌다. 둘의 숨소리가 번갈아 가며 파란 하늘로 튀어 올랐다가 들어가기 반복했다. 팔딱거리던 숨이 가라앉자, 이네가 입을 열었다. “단오야.”

“응?”

“나도 가보고 싶어, 네가 사는 곳. 너의 세계가 궁금해.”

단오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오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별로 자랑스러운 곳이 아니거든. 너의 실망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단오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가라앉았다.

“너한테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도 그렇지 않아. 내 자유는 이 구역을 둘러싼 울타리가 끝이니까. 그동안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이제 아니잖아. 방법이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응?”

단오는 입을 다문 채 눈으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따라갔다. 이네가 말을 이었다.

“나도 이 섬의 일부야... 이곳의 현실을 끌어안을 책임이 나한테도 있는 거라고.”

줄을 지어 흘러가던 구름의 마지막 조각이 눈동자에서 벗어나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났을 때, 단오는 마지막에 입을 열었다.

“곧 축제가 있어... 그때 올래?”

단오는 자기 쪽으로 돌아누워 뻗히 바라보는 이네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었다. 이네의 눈이 소리 없이 답했다. ‘응, 좋아.’

기대로 가득 찬 초록색 눈동자 위로 해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단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네가 하얀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어딘가 어색한 그림의 부조화가 괴리감을 일으켰다. 이번엔 이네를 교실이 있는 복도로 옮겨 놓았다. 불편한 느낌은 더 심해졌다. 다음엔 식당으로, 그다음엔 승마장으로 옮겨 보았지만 어느 곳도 이네와 어울리지 않았다. 단오는 마지막으로 축제가 열릴 텅 빈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이네를 세워두고 비밀 통로를 나왔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뒤에서 단오를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유였다. “선생님.” 항상 특유의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진유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아직 시간 좀 남았는데, 같이 걸을래?” 두 사람은 나란히 텅 빈 승마장의 둘레를 돌기 시작했다. 버려진 땅의 고요를 깨고 네 신발이 흙바닥과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가 두서없이 겹쳐졌다. 단오는 진유의 눈치를 살피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십칠 년 전이었다. 처음 저 통로를 지나 그곳에 다다랐을 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 아주 기이한 초록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세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팔에 안고 흐느끼고 있었어.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나도 모르게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

단오는 진유의 입에서 나온 ‘우리’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진유는 언제나 혼자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 그의 한결같은 따뜻함조차도 고독한 기운을 숨겨주지 못했다.

“잠깐 눈물을 나눈 그 시간에 우리는 오래 알았던 사이처럼 가까워졌어. 나는 매일 새벽마다 그 사람을 찾아갔어. 그 사람 눈동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

단오는 이네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을 이목구비에 눈물이 고인 얼굴을 상상했다. ‘이네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진유는 단오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다. “내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 근데 아팠어, 많이. 항상 불안해했고. 내가 가면 항상 무엇인가 찾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물으면 자기도 모른다고만 했어. 나는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그는 활짝 웃다가도 틈이 생기면 금세 표정이 어두워졌어. 날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었어. 어느 날은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아주 괴상한 꿈을 꾸었다며 열변을 토했지. 내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난 더이상 그 사람을 찾지 않았어. 그 사람을 보는 게 두렵고 괴로웠거든.”

단오는 쏟아져나오는 그의 무거운 이야기에 놀란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가 잠깐 쉬다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떠난 뒤로도 그 사람과의 기억이 매일같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 매일 그 사람이 그리워서 돌아갈까 망설였어. 그런 날이 오 년쯤 흘렀을 때였나,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그를 무작정 찾아갔는데,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이 그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달려와서는 나를 끌어안고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

였어. 어린 딸에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 숨이 끊어지면 몸을 묻어달라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어.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영원히 떠나보내고 돌아와 죄책감에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다 내 탓인 것 같았어. 내가 그 사람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그의 병이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시는, 정말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 사람의 딸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야 하니까. 바깥세계와 닿지 않고 행복하게.”

진유의 목소리가 떨렸다. 단오는 그가 눈물을 마음껏 떨어뜨리도록 그의 얼굴을 돌아보지 않았다. 훌쩍이는 소리가 잦아들자, 단오가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여기로 올 거예요. 축제 날에.” 진유가 걸음을 멈추고 단오의 손목을 붙들었다.

“안 된다, 단오야. 그 아이가 보면 안 될 장면이야.”

“그 아이는 선생님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그 아이도 이 섬의 일부인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하겠어요. 잘못했다간 그 아이도 그분처럼 불행해질지 몰라요.”

진유는 무언가 대꾸하려다 입을 다물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온갖 기억에 찢린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단오는 알았다. 흔들림이 멈추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했다. “선생님이 그 아이의 곁을 지켜주시면 되지요. 다음 주 휴식 시간에 제가 그 아이랑 같이 오면 축제까지 남은 하룻밤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있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유는 말없이 걸음을 계속했다. 진유의 대답 없음은 언제나 긍정을 뜻했다. 그는 거절을 확신하는 일이 아니면 한참 후에라도 꼭 긍정의 답을 보내왔다. 단지 지금은 그의 긍정에 약간의 용기가 모자랄 뿐이었다.

단오의 계획은 이러했다. 축제 전날 휴식 시간에 평소처럼 이네에게 가서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옷으로 갈아입게 한 뒤, 진유가 승마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네를 데려가고, 단오는 아침에 경기장에서 합류하는 것이었다. 하얀 집 구성원들은 지정석에 앉아야 하지만 주석은 축제를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 군중 속에 숨으면 주석의 눈에 띄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다시 진유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새벽에 이네를 보내면 될 것이었다. 단오는 오랜만에 강하게 치솟는 의기를 느꼈다. 그리고 그의 계획에는 아무런 차질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5

유토피아 섬 중앙에 자리 잡은 원형 경기장은 일 년 내내 폐허처럼 방치되었다가 축제 날이 되면 만 명이 넘는 섬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여들었다. 한 해 동안 이루어낸 성과를 발표하고 자축하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분위기는 조용하다 못해 엄숙하기까지 했다. 단오가 원형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정문 앞에서 입장을 위해 일렬로 줄을 서 있었다. 사람들은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거나 무엇인가 조용히 속삭였는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두판매를 하는 사람만 바쁘게 줄 사이를 다니며 물을 팔고 있었다. 단오가 가까이 가자,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오늘 여기 있는 것 전부 팔아야 합니다요. 그래야 성과기록표를 만회하고 주석께 이번 달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단오는 원래 사려던 세 병에서 한 병을 더 사 들고는 진유와 이네를 기다렸다. 전날 밤 비밀 통로를 지나 처음으로 승마장에 올라오던 이네의 얼굴이 단오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단오의 온 신경은 이네에게 쏠려 있었다. 이네의 ‘횡단 사건’에 누구보다 긴장했을 진유 선생 따위는 단오의 안중에 없었다. 이네는 단오의 예상과 달리 하얀 집의 전경을 보고도 감탄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진유에게 첫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어 보이긴 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듯 계속해서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공기가 모자라서 끌어모으는 것 같았다. 진유는 그런 이네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단오는 어색함을 풀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보내야 했다.

진유와 이네는 약속 시간이 조금 넘어서 등장했다. 단오는 두 사람의 얼굴부터 살폈다. 지난 저녁보다 훨씬 더 편안해진 얼굴들이었다. 휴, 동동거리던 단오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세 사람은 줄의 끝에 자리를 잡고 차례를 기다렸다. 평소에 하얀 집의 구성원은 줄을 기다리지 않고 때를 맞춰 뒷문으로 입장했기 때문에 단오가 줄을 기다려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조용한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셋은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었다. 단오는 이네가 두리번거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응시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상에 골똘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자세히 보는 걸까.’* 문득, 어쩌면 이네가 저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래서 이네의 눈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단오의 머리를 스쳤다. 예상보다 빠르게 정문에 다다랐는데, 안내원이 나폴거리는 이네의 붉은 머리를 신기하게 쳐다본 것을 제외하고는 별 대수롭지 않게 들여보내 주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동그란 경기장의 테두리 위로 쌓아 올려진 수많은 관중석에 압도되면서 킁킁한 먼지 냄새가 훅 올라왔다. 이네는 하얀 집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거대함이나 웅장함 따위야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다. “단오야, 앞에 앉아도 돼?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단오는 경기장을 사이에 두고 대각선 방향에 있는 주석의 단상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세 사람은 맨 앞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앞에 앉으니 축제 준비를 위해 경기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이 눈에 보였다. 이네가 경기장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서는 뭘 하길래 저렇게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단오는 답을 하려다 말고 진유에게 넘겼다. “이네야...음...” 진유의 목소리에 한숨이 깊게 스며들었다. 이네가 다시 무슨 말을 꺼내려 했지만. 곧바로 경기장 전체에 주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곧 여는 행사가 시작될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의 단상 뒤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 구역이 전체 관중석의 색과 대비되어 이질감을 일으켰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옷에 박힌 단추들이 빛에 반사되어 단오의 눈을 찔렀다. 주석이 팔을 들어 올리자, 단상 맞은편에 있는 봉화대에 불이 붙으며 화염이 타올랐다. 다시 손짓을 하니 관객석 밑으로 뚫려 있는 경기장의 철문으로 맹수 두 마리가 쇠 목줄에 묶인 채로 끌려 나왔다. 맹수는 둘 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야윈 모습이었다. 단오의 머릿속에서 격리구역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맹수가 떠올랐다. 저들도 원래는 그렇게 건강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이상해졌다. 목줄을 끌고 나온 두 사람은 단오 또래의 남자로 보였는데, 때 묻은 얼굴에 여기저기 찢어진 낡은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다. 경기장의 중앙에 맹수를 마주 보게 세운 뒤, 그들은 주머니에서 알 수 없는 가루를 털어내 맹수의 코에 바르고는 재빨리 다시 문으로 돌아가 반듯하게 섰다. 몇 초가 채 지나지 않아 두 맹수는 코를 킁킁거리며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발을 들어 올린 채 서로를 향해 달려들더니 발톱을 세워 얼굴과 몸을 마구 잡이로 할퀴었다. 검은색 털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며 흙바닥에 무늬를 남겼다. 단오는 눈을 깜빡이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장면을 응시하다가 무엇인가 덜덜거리며 옷자락을 부여잡는 것을 느끼고 옆을 돌아보았다. 이네의 몸 전체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단오의 물음에 이네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너 어떻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

“괜찮아, 이네야. 맹수잖아.” 단오의 대답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너... 너... 어떻게...” 눈물이 흥건해진 이네의 처량한 눈이 뾰족한 날이 되어 단오의 마음을 찔렀다. 당황한 단오가 주변을 의식하며 뒤를 돌아보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얇은 미소를 띠고 경기장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사람들의 표정에 단오는 소름이 돋았

다. 그 사이 두 맹수는 다시 바닥에 엉겨 붙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주석이 단상에서 다시 입을 열었다. “올해 베데스다 구역에서 가장 쓸모없게 된 두 맹수가 서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 개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답했다. “네!”

“유토피아입니다! 건강하십니까.”

“네!”

“유토피아입니다! 이 공정하고 아름다운 사회에 마땅한 쓸모가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맹수 하나가 여기저기 살점이 뜯겨나간 채 피 칠갑이 되어 쓰러졌다. 뼈가 앙상한 몸통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곧이어 다른 한 마리도 중심을 잃고 그 위에 고꾸라졌다. 그 순간, 이네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그만!”

관중석의 모든 눈이 이네를 향해 쏠렸다. 단오는 주석과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이네에게 고정된 시선을 옮기지 않았다. 이네의 목소리가 다시 정적을 뚫었다. “그만해. 제발.” 이네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하염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죠?” 주석이 이네를 향해 물었다. 단오는 갑자기 끼어든 주석의 큰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진유가 이네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네야, 나가자. 더 있으면 위험해.” 그러나 이네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흐느꼈다. 진유가 몸을 낮게 일으켜 이네를 잡아끄는데, 경기장에서 누군가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문 앞에 서 있던 두 청년 중 하나가 어느새 맹수가 쓰러져 있는 경기장의 중앙으로 와서는 이네를 올려다보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이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가슴을 치며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망할 유토피아. 망할 유토피아, 망할...” 단오가 단상으로 시선을 옮기니 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석이 아래로 손짓을 하자, 철문 앞에 서 있던 다른 청년이 울부짖는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 단오가 다시 고개를 돌리는데 방심한 사이 주석과 눈이 마주쳤다. 서로를 닮은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가 단오 쪽으로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축제를 중단하겠습니다. 거기 세 분은 후문으로 오십시오. 저와 하얀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단오의 의기 어린 계획은, 그렇게 부서지다 못해 산산조각이 났다.

6

주석의 집무실은 단오의 방처럼 하얀색이었다. 양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넓은 벽이 책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책꽂이의 중앙에 말발굽 모양의 흰 책상이 자리를 잡았는데, 찻잔과 펼쳐진 책들, 높이 쌓인 서류 묶음 여러 개가 정해진 규칙에 따른 것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이네와 단오, 진유는 집무실의 왼쪽 공간에 회의를 위해 마련된 기다란 의자에 차례로 앉았다. 주석이 출입문을 닫고 세 사람 앞에 섰다. “이름이?” 그가 이네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 이네는 입을 다문 채 아직 붉은 기가 가시지 않은 눈으로 주석을 매섭게 올려보았다. 주석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단오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네라고 합니다.” 단오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석의 눈빛이 단오의 온몸을 뚫어줄처럼 휘감고 있었다.

“나이는? 어디에 살지?”

“나이는...이십 세이고... 사는 곳은...” 단오는 차마 격리구역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릿

속에서 오만가지 장소를 떠올리며 마땅한 곳을 찾으려 애썼다. 주석이 잠시 무엇인가 생각해 내려는 듯 눈을 굴리며 말했다. “이네라는 이름에 스무 살이라... 이 섬에 사는 일만 이천이십 육 명의 이름과 거주지, 월별 성과기록표가 다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오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주석이 눈썹을 치켜 올리고 물었다. “격리구역 사람인가? 어떻게 넘어왔지?” 단오의 옆에서 진유의 어깨가 움찔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진유가 입을 열었다. “전부 제 탓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격리구역으로 가는 통로를 발견한 것도 저이고, 단오님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도 저입니다.” 주석이 하얀 정장 소매의 주름을 펴고는 이네를 향해 말했다. “아니요, 전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격리구역의 존재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이렇게 하지요. 지금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이 사태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사람들을 다시 모으려 합니다. 하얀 집 구역으로 들어오는 성문 앞에서요. 그때까지 결정할 시간을 드리지요. 이곳에서 능력 평가를 거치고 결과에 맞는 자리를 찾아 일하겠다는 조건으로, 격리구역에서 벗어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통로는 내일 완전히 폐쇄될 것입니다.”

“둘 다 싫다면요?” 이네가 물었다.

“다른 선택권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어긴 쪽이 책임을 져야지요.”

주석은 칼같이 용무를 끊으려는 듯 큰 소리로 문지기를 불렀다. 문지기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가 이네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이 사람과 같이 좀 가주시지요. 가야 할 곳에 보내주시고 위치는 저에게 보고해주세요.” 문지기가 이네를 일으켜 데리고 나갔다.

“두 사람은 내일까지 저 아이와의 어떤 접촉도 금합니다. 나가보세요.” 단오는 주석이 별다른 물리적인 조치 없이 말만으로 자신과 진유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런 주석의 믿음은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단오가 방으로 올라오니 모든 근육과 뼈에서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바닥에 축 늘어져 천장을 바라보았다. 경기장에서 울먹이며 자신을 바라보던 이네의 실망한 눈빛이 떠오르며 심장이 조여들었다. 단오의 눈꼬리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에는 이런 감정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견뎌왔지만, 이네와 가까워진 이후로 더이상 혼자 버틸 수 없게 되었다. 단오는 목소리를 끌어모아 사무관을 불렀다. 계단을 밟는 소리에 이어 사무관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단오님, 왜 그러고 계세요...”

“진유 선생님 아직 얼마 못 가셨을 거예요.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무관이 나가고 단오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백 이십을 넘길 무렵 놓쳐 버린 다음 숫자를 찾아 머릿속을 헤매는데, 진유가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왔다.

“아휴... 단오야...”

진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오를 바닥에서 천천히 일으켰다. 그리고 단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등을 쓸어내리는 진유의 손에서 나온 온기가 단오의 몸에 퍼져나갔다. 단오의 흐린 눈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멈출 줄을 몰랐다.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이네의 품에서 울었던 기억 때문이었다. 다시는 그런 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단오는 마음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진유가 팔을 풀어서 단오의 두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이마를 맞대며 속삭였다. “단오야, 오랜만에 너가 좋아하는 거 할까.” 처음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을 무렵, 단오는 젊은 진유와 한 문장씩 번갈아 써 내려가며 짧은 글을 짓는 놀이를 좋아했다. 진유는 조용히 일어나 단오의 책상에서 종이와 연필 두 개를 가져 왔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어 단오에게 내밀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놀이가 시작되었다.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은 그리워하는 게 아니지.

집채만 한 아픔에 깔려 죽은 테니까.

그 대신 언젠가 볼 수 있을 당신과

내일 볼 너를 그리워하며

그마저도 온전히 아프기 싫어

왜 다시 볼 수 있을까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한탄하다가 슬픔을 사랑해버리고 만 겁쟁이.

“선생님.” 단오가 연필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응?”

“저 다 포기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못하겠는 게 있어요.”

“뭔데?”

“오늘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제가.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 내내 배운 것을 제가 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사과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가서 하고 와.”

“하지만 어머니가...”

“내가 아는 그 아이는, 겨우 두 가지 선택 안에 갇힐 사람이 아니야. 분명 다른 일을 일으키려 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도와줘.”

단오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진유의 확신에 찬 눈빛을 확인한 뒤 창틀 너머로 뛰어내렸다.

7

이네를 처음 만난 날의 밤처럼 단오는 쉬지 않고 달렸다. 뛰는 내내 문을 열어주는 이네의 오만가지 표정이 떠올랐다. ‘울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화가 나 있을까.’ 단오는 이네의 집에 도착해서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숨을 거칠게 내뿔으며 문을 두드렸다. 기다려도 답이 없었다. “이네야, 나 왔어. 할 말이 있어.” 문을 다시 두드렸지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미안해 이네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단오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숲속 어딘가에 이네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단오에게는 이네가 증발해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웅크린 채 울기만 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뒤에서 어렴풋이 말발굽 소리가 단오의 귀에 하나 둘씩 들어오다가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러 개가 아무런 규칙 없이 겹쳐진 소리는 한 마리가 내는 것이 아닌 듯했다. 단오가 푹 숙인 고개를 천천히 들어 뒤를 돌아보자, 이네가 멀리서 말을 타고 숲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네가 탄 말 뒤로 여섯 마리의 말이 함께 달리고 있었다. 들꽃밭 사이로 먼지를 일으키는 말들의 행진과 이네의 펄럭이는 망토가 눈물이 맺힌 단오의 눈에 뿌옇게 들어오며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단오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또 하나의 말이 행진 소리에 맞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금세 가까이 다가온 이네가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단오에게 말했다. “베데스다에 가야겠어, 단오야. 그 맹수들이 있는 곳. 나랑 같

이 가자.” 이네는 조금 전까지 운 듯 눈이 발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경기장에 있을 때 가득 차 있던 분노와 원망은 말끔히 씻긴 눈동자에 단오는 마음이 가라앉았다.

“지금 통로로 넘어가는 건 위험해. 어머니께 들킬지도 몰라.”

“아니, 그래도 가야 해. 들키게 되더라도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 이네가 말에서 뛰어 내리자, 말이 땀을 털어내려는 듯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잠깐만.” 단오의 머릿속에서 새까만 눈동자를 담은 노란색 눈과 침을 똑똑 흘리는 이빨이 스쳐 지나갔다. ‘맹수가 이곳에 있었어, 분명.’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그 검은 표범, 말이야. 내가 여기 처음 왔던 날에 내가 쫓기던 나를 구해줬잖아.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찾은 건 몇 달 안 된 일이야. 사납게 생긴 것치고는 너무 순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 친해질 무렵에는 제 성질이 나오더라.” 이네의 입가에 희미하게 장난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성질이 순했다면 베데스다에서 나온 게 분명해. 사나워지지 않도록 매일 약을 먹이거든. 너, 이 구역 울타리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일 없었어? 아니면 바깥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거라도.”

“아니 없었어. 왜 그러는데,”

단오는 곧바로 격리구역이 까맣게 가려져 있는 유토피아 섬의 전체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는 하얀 집과 격리구역, 베데스다의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것처럼 세 곳 사이의 방향과 거리가 잡혀갔다. 단오가 이네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지금 내가 따져본 게 맞다면, 베데스다는 여기 동쪽 울타리 바로 너머에 있어. 그 맹수가 울타리를 용케 넘어서 여기 들어온 거라고.”

“그럼 지금 부수러 가자, 그 경계.” 이네가 다시 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니, 경계를 부술 수는 없어. 최대한 눈에 띄지 않아야 해. 저 사다리로 넘어가자.” 단오가 집 벽에 세워져 있는 사다리를 들추어내자, 이네가 달려와 한쪽 끝을 천천히 내려서 오른쪽 어깨 위에 짚어졌다. “어깨에 반대쪽 질 수 있겠어?” 이네의 물음에 단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다리가 평평해지도록 나머지 끝을 있는 힘껏 들어서 같은 어깨에 올려놓았다. 사다리를 함께 진 두 사람은 말들 사이를 지나 들판으로 걸어 나갔다. “동쪽 울타리가 제일 가까워서 다 행이다.” 앞서 나가던 이네가 고개를 반쯤 돌려 단오에게 말했다. 단오는 대답을 대신해 발걸음마다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둘은 숫자에 발을 맞춰 걸으며 말없이 숲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오가 세는 박자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이마에 맺힌 땀이 흘러내리고 오른쪽 어깨뼈가 통나무의 무게에 짓눌려 쓰라렸지만 단오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네는 단오가 점점 힘에 부치고 있는 것을 알았는지 걸음을 늦추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숨소리와 낙엽이 밟히는 소리가 얼마나 이어졌을까. 이네의 뒷모습 앞으로 길게 늘어선 울타리가 드러났다. “고생했어 단오야.” 이네의 청아한 목소리가 헉헉거리는 단오의 숨소리 사이로 생수 같은 힘이 되어 스며들었다.

이네가 울타리 앞에 사다리를 세우고 보니 길이가 꽤 못 미쳤다. 단오는 이네의 뒤를 따라 사다리를 하나씩 밟고 올라가다 맨 마지막 단계에서 울타리 끝에 다리를 걸치고는 반대쪽으로 뛰어내렸다. 다행히도 하얀 집에서 뛰어내렸을 때와는 다르게 발이 흙 속에 빠질 정도로 땅이 폭신했다.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모난 돌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려 지은 것처럼 보이는 거

대한 건물이 단오의 눈에 들어왔다. 입구로 보이는 철문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단오와 이네를 발견하고는 두 사람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얼굴이 보일 만큼 다가서자, 단오는 그가 경기장에서 이네를 향해 울부짖던 청년임을 알아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순하게 생긴 작은 눈과 부드럽게 내려오는 경사진 코, 꼬리가 올라간 얇은 입술 사이로 보이는 가리런 치아가 서글서글한 인상을 주는 얼굴이었다.

“무슨...” 청년은 말을 꺼내려다 말고 낮이 나간 사람처럼 이네의 눈을 뵈히 바라보았다. 단오는 문득, 이네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의 얼굴이 저랬을 것이라는 생각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말이 끊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단오가 이네의 얼굴을 돌아보니 이네의 눈동자가 청년의 얼굴에 완벽히 고정된 채 빛나고 있었다. 단오는 그런 이네의 눈빛을 처음 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단오는 결코 알아낼 수 없는 무엇인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네가 고개를 작게 흔들더니 정적을 깨며 말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단오는 이번에도 이름을 먼저 묻는 이네를 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호민...입니다.”

“전 이네라고 합니다, 저희는 격리구역에서 왔습니다.”

청년은 그제야 이네의 일행을 의식한 듯 단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네가 급하게 말을 덧붙였다. “아, 이 친구는 단오이고요. 건물 안에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청년은 조금 전까지의 기류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시죠.”

호민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맹수의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르며 아주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겉에서 봤을 때의 예상과 달리 건물은 천장이 높은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조각을 이어붙인 거대한 천이 원래는 뚫려 있었을 둥근 천장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맹수가 한 마리씩 갇힌 쇠창살로 된 방들이 층을 이루며 동그랗게 공간을 둘러쌌다. 맹수들은 대부분 검은색 표범이었지만, 중간중간에 흰 얼룩이 있거나 연한 갈색인 돌연변이도 보였다. 쇠창살이 끝나는 곳에 천장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세 개가 나란히 놓였는데, 사다리 칸 사이로 보이는 벽에 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모양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바닥에는 천장을 덮은 것과 비슷한 천으로 된 이불이 여기저기 깔렸고, 그 위에 서른 명 남짓의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때 묻은 얼굴에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린 보라색 옷차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보라색의 선명함에 단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단오는 사람들이 깔깔거리는 소리에 덮여 희미하게 띄엄띄엄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미련한 것들을...

지혜 있는... 부끄럽게...

세상의 약한 것들을...

강한 것들을.... 하려 하시며

그가 세상의 없는 것... 택하사

....폐하려 하시나니

호민이 멍쩍은 표정으로 손바닥을 세게 치며 외쳤다. “다들 조용히 해보세요! 격리구역에서

사람이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 목소리가 하나둘씩 줄어들더니 마침내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네를 향했을 때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네가 공간의 중앙으로 더 들어오자, 이네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풀냄새를 맡았는지 맹수들이 철망 사이에 머리를 가까이 붙이고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경기장에서 축제를 중단시켰다는 그분입니까.”

“맞습니다.” 이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다.

“매년 축제 때마다 여기서 제일 허약한 두 마리가 그렇게 끌려나가서 죽게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요? 도대체 왜, 맹수들을 이렇게 가둬놓은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시고요.”

“베데스다의 맹수창고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있었을 거예요. 섬사람 전체가 맹수는 아주 위험하고 끔찍한 동물이어서 강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저희의 처지도 이 맹수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마따나, 전체의 생산력을 저해하고... 사회에 흡수되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니까요. 성과기록표 성적이 심각하게 낮거나 애초에 능력이 너무 없어서 이 섬에서 일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네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주먹 진 손이 떨리는 것이 단오의 눈에 들어왔다.

“다들 여기 사는 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나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미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이곳에 살았습니다. 나갈 힘이 없어요.”

잠간의 침묵이 흐른 뒤, 이네가 입을 열었다.

“저는 나갈 수 있는가를 묻지 않았습시다. 나가고 싶으신지 물었지요.”

할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대답을 망설이자, 왼편에서 한 소녀가 소리쳤다.

“나가고 싶어요!” 소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한 명씩 외치기 시작했다.

“나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나가고 싶지요!”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나가게 해주세요!”

이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가야지요! 여러분도 맹수들도 전부요!”

“하지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난단 말입니까. 맹수들은 어떻게 하고요?”

이네는 잠시 머릿속을 정리하려는 듯 고개를 들어 맹수들을 한번 둘러보고 대답했다.

“내일 아침, 하얀 집 구역의 성문 앞에 섬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맹수를 모두 풀어주고 함께 성문으로 가서 주석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다음은 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라도 해보시겠습니까?”

이네의 예상치 못한 말이 단오의 뇌리를 때렸다. 그런 것이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안다고 착각하여 단오의 지난 계획이 부서진 것이었다.

할머니는 뒤돌아 한명 한명의 얼굴을 확인한 뒤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단, 내일은 약을 먹이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주 사나워질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거칠어졌다.

“아니요,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맹수들이 이네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쇠창살에 발톱을 끼우고 그르렁거렸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그렇게 하지요.”

“저는 내일 해 뜨기 직전 새벽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네가 단오에게 나가자고 손짓을 하며 문 쪽으로 돌아서는데, 다섯 살 정도로 보이는 꼬마 하나가 뛰어나와 이네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이네는 쏘그려 앉아 아이와 눈을 맞추고는 활짝 미

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는 밝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쪼르르 자리로 돌아갔다. 단오와 이네는 맹수창고를 나와 울타리로 향했다,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따라 나와 돌을 둘러싸더니 원을 그리며 함께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호민이 사다리를 들고서 성큼성큼 걸었다. 그들은 단오와 이네가 울타리에 도착해 무사히 경계를 넘어갈 때까지 배웅을 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네와 단오는 마당에 나란히 웅크리고 앉았다. 흐드러진 들꽃에 이슬이 맺혀 반짝이는 샘물처럼 보였고, 차가운 새벽 공기에 흙과 꽃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단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밤에 할 일이 뭐야?”

“그냥... 혹시라도 오늘이 너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까봐...” 이네의 말에 단오의 마음이 다시 조여들었다. 이네가 급히 화제를 돌리려는 듯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진유 선생님께 얼마 이야기를 들었어...” 단오는 혼자서 가만히 지키고 있으려던 이야기를 이네가 먼저 꺼낸 것에 놀랐다. “아까 네가 오기 전에 엄마를 물어두셨다는 곳에 다녀왔어. 아무래도 엄마는 그 설계도의 비밀을 찾으려 하신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내가 여기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영원히 못 찾게 되겠지...”

“네가 그다음은 알 수 없는 거라며.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하자.” 단오의 말에 이네가 심각한 얼굴을 풀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입을 열었다.

“단오야.”

“응?”

“새로운 세상이 온다면 말이야... 어떤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단오는 이네의 질문에 당황했다. ‘새로운 세상이라...’ 이제껏 생각해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는 것이었다. 단오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답을 꺼냈다.

“좀 쉬고 싶어... 성과기록표가 없는 세상을 원해. 머리를 쓰든 몸을 쓰든 모두의 가치가 똑같이 존중받는 세상...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 말이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 내가 느끼는 걸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세상, 악몽이 없는 세상... 답이 없는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나가는 세상...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네의 눈이 상상에 잠긴 듯 흐려져 있었다.

“너는? 어떤 세상을 원해?” 단오가 답을 하려다 말고 되물었다.

“나... 난 그냥 너랑 함께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단오는 순간 자신의 대답이 부끄러워졌다. 이네의 말이 옳았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이네만 있다면 다 견딜 수 있을 테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도 이네가 없는 세상에서의 행복은 상상할 수 없었다. 이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두고 봐, 단오야. 나의 작은 소원과 너의 큰 소원이 같은 세상을 이루어 낼 테니까. 아마 내 소원에서 더 강한 의지가 나올걸?”

“소외가 대의를 이룬다...” 단오는 이네의 말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려 애쓰며 중얼거렸다.

“근데 아까 그 사람 있잖아...” 이네는 갑자기 생각난 무언가로 급하게 화제를 바꾸려는 듯했다.

“누구 말하는 거야?”

“그 호민이라는 사람...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 마음이... 음...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그냥 아주 오래 그 사람을 알았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이네가 말끝을 흐리며 단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무슨 느낌인지 궁금하다...”

“보고 싶어, 그 사람 얼굴이... 아침에 또 만나겠지...”

단오가 고개를 돌려보니 이네의 눈이 감겨 있었다. 이네의 머리에 기대어 잠을 청하려는데 따뜻한 살결이 웅크린 단오의 손을 비집고 들어와 꼭 쥐었다.

“너랑 나랑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어도 말이야.. 우리 손바닥 그림처럼 삶은 겹쳐져 있는 거다... 기억해줘...” 이네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단오는 이네의 손을 잡은 채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에 먼저 깬 이네가 고개를 움직일 때까지 새벽 내내 깊은 잠에서 깨지 않았다.

8

두 사람이 베데스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바깥에 나와 부산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듯 계속해서 입을 달싹였고, 또 어떤 사람은 두 손을 꼭 마주 쥐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다. 갑자기 누군가 괴성을 지르는 소리도 들려왔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는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울타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네는 보고 싶은 사람을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저기 온다!” 호민이 이네를 먼저 발견하고 큰소리로 외쳤다. 이네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그를 향해 달려갔다. 단오는 덩달아 마음이 들뜨며 빠른 걸음으로 그 뒤를 쫓아갔다.

이네가 문 앞에 서자, 흠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네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이네가 확신에 찬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입을 열었다. “저와 함께 들어가 잠긴 쇠창살을 풀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네의 눈을 피하려는 듯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다. “정 그러시다면...” 이네가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며 다른 말을 꺼내려는데, 뒤에서 호민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마자 호민은 곧장 긴 사다리를 옮겨 놓고는 맹수들이 잠들어 있는 쇠창살 구조물의 가장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낸 뒤, 쇠창살 밑으로 층마다 붙어 있는 나무 선반을 따라서 걸어가며 자물쇠를 하나씩 열었다. 이네와 단오는 눈을 떼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칸에서 칸을 빠르게 넘어가는 그의 몸이 바람처럼 가벼워 보였다. 자물쇠가 풀릴 때마다 철컹하는 소리가 공간을 울리는데도 맹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직 어제 먹인 약 기운이 안 풀려서 웬만한 소리엔 잘 깨지 않아요.” 호민이 뒤돌아 내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자물쇠가 모두 풀리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단오는 조금씩 벌어진 쇠창살의 문들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호민이 가장 아래층의 마지막 자물쇠까지 모두 열고 내려와 가까이 다가오자, 이네가 말했다.

“잠시 나가 있어 주세요.”

단오와 호민이 철문을 나서는 순간,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보며 조용해졌다. 호민이 한쪽 팔을 뻗어 안심하라는 손짓을 했지만 긴장한 눈동자들은 풀어지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네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삼십 분 정도 지났을까. 철문이 열리며 이네의 뒷모습과 그 앞에 모여든 맹수들이 단오의 눈에 들어왔다. 이네는 맹수들의 머리 위로 양손을 뻗고서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맹수들이 이네의 손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하나둘씩 철문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위가 어둡혔는데도 맹수들의 노란 눈이 선명하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맹수들은 이네에게 이끌리다 못해 완전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경이에 찬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스무 마리 남짓으로 보이는 맹수들이 모두 나오자, 이네가 뒤를 돌지 않은 채로 입을 열었다. “단오야, 길 알고 있지?”

“응? 어...” 대답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이네에게서 단오를 향해 움직였다.

“여러분, 이 친구를 따라 출발하십시오. 저는 맹수들을 데리고 뒤따르겠습니다.”

단오는 태어나서 누군가를 수없이 앞질러 보았지만 이끌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천천히 모여드는 사람들 앞에서 단오가 망설이고 있는데, 호민이 그의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저랑 같이 가요.”

단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단오가 호민과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출발합니다!” 단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러 사람의 환호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갑시다, 이제 정말 이곳을 떠나는 겁니다!”

베데스다 구역을 나선 뒤부터 가는 길 내내 사람들은 조용해질 줄을 몰랐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듯했다. 단오는 이따금씩 뒤를 돌아보며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 피식 웃음을 내뿜었다.

“왜 그렇게 계속 웃어요?” 옆에서 호민이 물었다.

“좋아서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마음껏 소리 내는 모습, 처음 봐요. 정말로 행복해 보여요.”

“하긴, 섬이 좀 지나치게 조용하지요.” 호민이 눈을 찡그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선한 눈꼬리와 길게 올라간 입꼬리가 보는 사람을 따라 웃게 했다. 그들은 포장된 길이 나오기까지 한참 울퉁불퉁한 바위로 된 땅을 걸었다. 단오는 베데스다 구역이 어느 정도로 구석진 곳에 있는지 실감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 마을에 들어서고 오래 지나지 않아 멀리서 성문 앞에 모여든 군중의 모습이 단오의 눈에 들어왔다. 단오는 일부러 뒤따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참재우지 않았다. 더 거리를 좁히자, 군중 속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알아차린 몇몇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중 한 명이 맹수 무리를 보고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맹수다! 맹수들이 몰려옵니다!”

9

단오와 호민이 군중 앞으로 다가가니 뻘뻘한 인파가 맹수 무리를 피해서 한순간에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열려 있는 성문 안으로 하얀 집 구성원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단오는 갈라진 인파 사이에 들어서자마자 두리번거리며 군중 틈으로 진유를 애타게 찾았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모양의 얼굴 중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주석과 대표 여섯이 성문 위에 설치된 난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뒤따르는 베데스다의 무리가 군중이 늘어선 모양을 따라 양쪽에 자리를 잡자, 마침내 이네가 맹수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걸음을 멈추었다.

“성문을 닫으십시오!” 주석이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성문 안에서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와 문고리를 하나씩 잡고 천천히 밀어내었다. 좁아지는 문틈으로 무표정한 수십 개의 얼굴이 점점 줄어들다 마침내 아무도 보이지 않게 가려졌다. 바깥에 서 있던 몇몇 사람이 달려나가 성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우리도 들여보내 주시오!” 주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잠잠해지자, 공기를 찢을 듯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휘감기 시작했다. 작은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숨 막히는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네는 주석의 얼굴에 쏘인 시선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정적을 뚫고 명랑한 목소리 하나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단오는 목소리의 주인을 찾으려 뒤를 돌아보았다. 단오의 눈동자가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 내려가니, 지난밤 이네에게 관심을 보였던 그 꼬마 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너털거리는 보라색 옷자락 틈에 서 있었다. 방금 자신이 아

주 험상궂은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이는 미소를 거두지 않고 더 나아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 맹수창고에 들어섰을 때 어렴풋이 들려온 아이들의 노래였다. 아이를 지켜보던 베데스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소리 죽여 웃음을 터뜨리더니 하나둘씩 아이의 노래에 동참했다. 여러 개의 목소리가 아이의 노래에 겹쳐지며 물웅덩이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번져갔다.

*그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가 세상의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²⁾*

단오의 옆에서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네가 목소리에 합류했다. 노래를 부르는 이네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소리가 귀를 타고 심장으로 들어와 여기저기 간지럽히더니 이내 가슴을 빠근하게 했다. 이네의 청아한 가락이 수많은 목소리를 뚫고 나오며 굳게 닫힌 성문을 울렸다. 단오가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의 눈동자에 눈물이 흥건해져 있었다. 눈물 줄기는 빨강게 상기된 얼굴들을 타고 앞다투어 떨어졌다. 주석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주석의 옆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이 나무로 된 얇고 긴 물건을 들고 서 있었다. 축제에서 맹수의 숨이 시간 내로 끊어지지 않을 때 쓰이는 총이었다. 단오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네의 팔을 붙들었다. 해맑은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던 이네가 돌아본 순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주석이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려 쏘라는 손짓을 했다.

“안돼!”

이네가 소리치며 맨 앞에 선 맹수를 막아서는데, 단오는 본능적으로 그의 앞으로 뛰어나와 팔을 뒤로 뻗어 이네의 몸을 감쌌다. 총성이 노랫소리를 뚫 끊어내며 뾰족한 총알의 끝이 단오의 빗장뼈를 파고들었다. 불에 타는 것 같은 통증이 단오의 몸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뜨겁게, 뜨겁게, 서서히. 마구 쑈셔대는 것 같은 강렬한 통증이었지만 단오의 마음에는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단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석을 올려다보았다. 주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똑똑히 보세요, 어머니. 당신이 한 일입니다.*’ 단오가 계속 눈을 피하지 않자, 주석이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를 지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난간의 뒷문을 뚫쳐나갔다. 그와 동시에 성문이 열리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많아진 사람이 한데 엉겨 붙어서는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음을 터뜨리고, 또 몇몇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괴상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단오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텅 빈 눈동자에 분수처럼 터져 나오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무서워 보일 지경이었다. 단오의 다리가 통증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어느새 온몸에 통증이 퍼져서 감각만으로는 총을 맞은 부분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네가 단오를 붙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군중의 소란에 하염없이 묻혀 버렸다. 단오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데, 두 사람을 둘러싼 무리를

2)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27-29 차용

밀치고 다급하게 들어오는 진유의 얼굴이 보였다. 잔뜩 찡그린 그의 눈이 단오와 마주친 순간 활짝 퍼졌다. “단오야!” 진유는 단오를 들어 올려 두 팔에 안고서 인파를 뚫으며 성문으로 들어갔다. 그가 걸음을 바꿀 때마다 단오의 몸이 들썩이며 상처가 쿡쿡 쑤졌다. “비켜 주세요! 지나가겠습니다!” 단오의 귀에 낮게 울리는 진유의 목소리가 점점 알아들을 수 없는 진동 소리로 변해갔다.

단오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익숙한 하얀색 천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지막하게 흐느끼는 소리를 따라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이네의 얼굴이 서서히 선명해졌다. 눈물로 빨갛게 얼룩진 얼굴이었다.

“어떻게 되었어?” 단오가 목소리를 내자, 목에 힘이 들어가며 다시 통증이 올라왔다.

“진유 선생님은 좀 전에 대표 회의에 불러 나가셨어. 성문 앞은 아직도 아수라장이야. 일단 호민이 겨우 맹수들을 성문 안으로 들여보내서 지키고 있대.”

“어머니는?”

“지금 한 시간 넘게 계속 찾고 있다는데, 어디로 사라지신 건지 안 보이냐 봐.”

단오의 눈에 공포에 질린 주석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저릿해져 왔다. 단오가 덤덤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나 오래 못 버틸 거야. 맹수를 잡는 데 쓰이는 독이 사람 몸에 퍼지면 수습할 방법이 없거든...”

“알아, 들어어...” 이네는 굳이 직접 그 이야기를 꺼냈어야 했냐는 눈빛으로 단오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이네야.” 단오는 이네라는 이름이 새삼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

“그 요나단이 나왔나 봐... 내가 널 찾으면 안 되는 거였어. 우리 이야기는 비극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야... 결국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 단오의 코가 시큰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네는 단오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단오도 그런 이네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손등을 덮는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졌다. 이네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다. 이네가 다시 고개를 들더니 입을 열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단오야... 우리가 설계도의 비밀을 찾은 것 같거든.” 단오는 통증이 어깨를 거쳐 이네와 닿은 손끝으로 번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정신이 다시 혼미해져 가기 시작했다. “그 노래 말이야... 그 노래에...” 말을 잇는 이네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들렸다. 단오의 눈이 서서히 감기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까마득한 암흑 속에서 뿌옇게 흐린 장면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하얀 집의 문을 지탱하는 새하얀 두 기둥이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장면과,

격리구역의 숲을 둘러싼 울타리가 밀물처럼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성과기록표 뭉치가 까맣게 불에 타들어 가는 장면과,

사람들이 한데 모여 평온한 미소를 띠고 낮잠을 자는 장면이.

아름다운 검은색 표범들이 눈을 반짝이며 뛰어노는 장면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네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작품 해설

이 소설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네와 단오의 관계를 그리는 것에 큰 초점을 두면서 능력주의(meritocracy)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 주제로 한 소설이다. 이와 한 맥락으로 이 소설에는 인문학의 쇠퇴를 비롯해 생산성 추구에만 몰두하는 현재 학문의 동태를 비판하는 저자의 시각이 담겨 있다. (하얀 집에서 진유의 언어 교육을 어릴 때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것, 섬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단오의 태도, 종교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네의 조상을 격리구역에 가둔 것 등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축소된 현실을 담았고, 하얀 집에서의 장면들과 이네의 집에 있는 책 내용에 대한 단오의 시각 등을 통해 성과주의에 수렴되는 학문과 교육을 표현했다.) 무엇보다 글쓴이는 이네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을 초월해 타인을 향해 나아가며, 현실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신학과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려 했다. 더불어 동물과 자유자재로 소통하고, 맹수끼리 싸움 붙이는 것을 저지하는 이네의 모습에는 생태주의적 상징이 담겨 있다.

사회 안에 개인이 있고 개인 안에 사회가 있기에 유토피아 섬은 개인의 내면과 사회구조에 대한 상징을 모두 담고 있다. 단오는 능력주의 사회구조에 녹아들어 부조리와 타협하며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인간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반면 이네는 생명력과 창조성을 마음껏 뽐내며 성과에 집착하는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창조성을 저해하는 단오의 하얀 집과 달리, 이네가 사는 격리구역에는 예술과 낭만과 사색이 있다. 하얀 집을 이루는 모든 것(음식, 가구 등)은 무미건조하고 감각과 감정을 억압하지만, 이네의 집에서는 풍부한 감정과 다채로운 감각이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표출되고 느껴진다. (한편 단오처럼 사회구조에 눌러 소외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네로 상징되는 새로운 가치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낼 잠재력을 가진다.) 베데스다는 신약성서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못의 이름을 차용한 메타포이다. 베데스다 구역의 맹수참고는 구조적으로 보면 소외와 억압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영역을 상징하며, 개인 내적으로 보면 타인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약점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베데스다 구역의 위치가 창조자 대리인의 후손이 격리된 곳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종교와 신학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네와 호민이 첫눈에 반하는 설정 또한 종교적 진리와 소외계층의 ‘인식론적 특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단오를 대하는 주석의 모습은 능력주의 사회구조를 답습하여 사회의 지도층에 여성이 올라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다른 약자 집단과의 연대를 포기하는 일부 여성주의 운동의 특징을 상징한다. 결국 주석이 자식을 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듯이, 이렇게 서로를 밟고 올라서게 하는 여성주의 운동의 끝은 자기 파멸일 수밖에 없다. 반면,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주석과 공통점을 가지는 이네는 지위 상승이 아니라 약자와의 연대를 통한 변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네는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득하고 감동을 전하는 방식으로 지도력을 발휘한다(이네의 눈 상징). 이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현재 여성주의 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나타낸다. 단, 약자 집단이 서로 연대할 때에는, 단오가 베데스다 구역으로 넘어갈 때 격리구역의 울타리를 부수지 않은 것처럼 반드시 서로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약자성을 공유하고 함께 연대해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단오와 호민의 이름을 묻는 이네의 목적은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존재 전체로서 대하는 것인 반면에 주석이 이네의 이름을 물을 때는 타인을 아래에 두고 분석하며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또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단오와 이네의 대화 중 섬이 시작된 과정과 역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성서의 창조 설화가 기록된 방식을 따른 것으로, 이네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방법이 아니라 비유나 상징을 통해 세상의 의미와 본질을 담으려 한 방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네의 설명에는 역사적 사실과 창조적인 해석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저자가 설정한 가상의

시공간이 먼 미래의 새로운 섬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맹수가 퍼뜨린 전염병에 대한 언급은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의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는 저자의 생각을 내포한다. ‘창조자의 대리인’에게 맡겨진 ‘설계도의 비밀’은 세상을 살리는 진리를 상징한다. 설계도의 비밀이 베데스다 사람 중에서도 가장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설정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당하는 계층이 이 사회를 살려낼 진리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인식론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네의 어머니는 자신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타인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영역에만 갇혀 진리를 찾으려 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영역을 초월해 사회적 약자를 향해 나아갔을 때 비로소 설계도의 비밀을 찾게 되는 이네의 모습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 신학과 종교의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베데스다에서 하얀 집으로 가는 여정을 단오와 호민이 함께 이끌게 되는 것은 전혀 상극의 사회적 위치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사회의 변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한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끝나지만, 이네가 말하는 설계도의 비밀을 깨닫고 단오가 미소를 짓는 결말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상상을 멈추지 않는 자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네가 찾은 답이 확실한지조차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서로의 ‘소외와 대의’를 이루어가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연대와 해방을 이루어냈고, 이러한 연대와 해방은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충분히 추구할만한 가치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은 비극이자 희극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크고 작은 상징들이 있는데, 베데스다 사람들이 맹수창고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에서는 구약성서의 이집트 노예 해방 모티프를, 이네와 단오가 사다리를 함께 지고 가는 장면에서는 신약성서의 골고다 언덕 모티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이네와 단오 중 한 명이 결국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나머지 상징들은 글쓴이의 해설을 제시하기보다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고 싶다. (등장인물의 인종, 이네의 옷차림, 진유의 외모, 검은 정장의 의미, 진유에게 죽이 맛있는 이유, 단오의 꿈, 머리를 올려 묶은 주석과 내려 묶은 단오, 보라색만 없는 단오의 단추, 베데스다 구역 사람들의 보라색 옷과 이네의 영역에서도 등장하는 보라색, 이네와 단오의 손바닥 물감 놀이에 쓰인 물감의 색이 애매하다는 것과 소설 곳곳의 색채 묘사에 담긴 의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눈물’이라는 감정표현, 비밀 통로를 지나온 이네가 숨을 몰아쉬는 이유, 단오와 진유가 함께 쓴 시, 단오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의 부재 등등)